

플라톤의 『파이돈』편에 제시된 혼의 불멸성에 관한 논증과 로고스, 존재 개념에 대한 논구*

이 풍 실
(서울대학교 철학과)

들어가는 말

『파이돈(Phaedo)』은 플라톤의 중기 대화편들 중의 하나로 간주되는 작품이다. 이 대화편에 대해서는 혼의 불멸성의 논증이 전체 분량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속에 형상(eidos)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의례 지적되곤 한다. 물론 대화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안에 어떤 확립된 교설이 자리잡고 있다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들 자체가 오로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평가절하 되어야 할 이유 또한 없다. 그것이 제시된 특정한 맥락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만 논의의 본래적인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논의 자체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어떤 불변의 대상이나 진리의 구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니는 보편적인 성격을 일체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파이돈』편에 제시된 혼의 불멸성 논증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재구성함과 동시에 그것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들로 대두되는 로고스(logos)와 존재(to on)에 대하여 논구하려는 본 논고의 목적을 정당화해줄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학사학위논문(2004년 10월)인 「플라톤의 『파이돈』편에 대한 연구」의 내용들 중에서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증 부분과 로고스, 존재 개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그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분량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줄고는 이미 참고 문헌들에 존재하는 다른 학자들의 견해보다는 원전에 대한 필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정리되었음을 밝히며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I. 『파이돈』편과 대화 형식

플라톤이 저술한 대부분의 다른 대화편들과 마찬가지로 『파이돈』편 역시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대화편은 소크라테스가 사형 집행 당일에 독배를 마시고 죽기까지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당시 참석자였던 파이돈이 플리우스에 머물고 있던 에케크라테스에게 들려주는 일종의 액자 구조로 되어 있다. 대화 내용을 전달받는자인 에케크라테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누는 주된 두 상대인 시미아스와 케베스 모두가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혼의 윤회와 불멸의 주장과 관련을 가지며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가지는 인식에 있어서의 한계를 지시한다. 대화 형식을 통해서 등장하는 화자들이 지니는 특정한 견해와 혼의 상태는 그들이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철학적 담론 내용의 한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주장들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가 자신의 죽음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변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된다는 사실 또한 『파이돈』편 안에서 제시되는 주장과 논증들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를 부여하고 있다. 요컨대 대화형식은 특정 대화상대자가 지니는 혼의 상태와 대화가 제시되는 구체적 맥락에 의해서 담론 내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은 독자로서 하여금 대화편의 내용을 완결된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 상태와 견해, 그리고 자신의 삶의 맥락 속에서 대화의 내용들을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II. 혼의 불멸성에 관한 논증이 시작된 맥락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증 이전에 소크라테스는 시미아스와 케베스에게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지혜의 완전한 인식을 얻을 것이며 또한 다른 좋은 것들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여 두려워하거나 성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며(63b-c)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 혼은 그 자체로 있으면서 고유한 기능을 발휘할 때에 비로소 지혜(phronesis)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육체의 영향을 배제할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작업이 바로 혼의 정화(katharsis)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죽기 전까지 혼은 육체와 결합되어 있으며 육체의 지속적인 영향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동안 혼은 정화의 수련을 통해서 지혜의 완전한 앎을 얻을 수는 없고 다만 그에 근접한 상태의 인식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죽음은 혼과 육체의 분리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통해서 혼은 그 자체로 있을 수 있게 되며 지혜의 완전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다른 탁월성(arete)들 또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죽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꾸준히 정화의 수련을 지속해온 혼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 즉 철학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왔고 따라서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철학에 봉사해온 소크라테스 역시 그러한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므로 죽음에 직면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63e-68b).

케베스는 위와 같은 소크라테스의 기대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혼이 사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존재해야만 하며 이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지적에 동의하며 혼의 불멸성에 대한 주장을 시작한다(70a-c).

Ⅲ. 혼의 불멸성에 관한 논증들

첫 번째로 소크라테스가 제시하는 논증(70d-77d)은 사후 혼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생전 혼의 존재를 증명하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대답자를 지니는 것들은 그러한 대답자로부터 생성된다는 주

장을 통하여 혼의 불멸성을 도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는 생성의 과정을 지시하는 개념상 필연적으로 대립적인 상태의 선행을 함축하게 되는 경우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커짐은 이전에 상대적으로 더 작았던 상태가 선행함을 필연적으로 함축하며 작아짐은 더 컸던 상태가 선행함을 함축한다. 그는 죽음과 삶 역시 이와 동일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양자가 서로에게서 생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과 죽음 상호간의 생성, 즉 윤회가 가능하려면 양자를 걸치는 동일한 혼의 존재가 요구되기 때문에 사후에도 혼은 존재한다고 그는 결론짓는다.

문제는 죽음과 삶이 커짐이나 작아짐처럼 대립적 상태의 과거 존재를 필연적으로 함축하는지의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은 삶을 전제하나 삶은 죽음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죽음이 라는 사태는 그것의 개념상 삶의 선행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삶은 그것으로부터 단지 죽지 않음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뿐 죽음의 선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혼과 육체간의 분리라는 소크라테스의 정의(64c)를 고려할 때 죽음과 삶은 혼과 육체 사이의 분리와 결합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리와 결합은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갖는다. 소크라테스가 혼과 육체간 분리의 진행 과정으로서 정화의 수련을 말하는 것이나 생성 과정의 일례로서 분리와 결합을 드는 것(71b) 등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분리와 결합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인 죽음과 삶은 그와 대립적인 상태의 선행함을 필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분리와 결합에 있어서 어느 수준에서 결합이 분리 상태로 전환되는지 또는 분리된 두 대상의 근접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을 때 결합이 되는 것인지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논증은 상기설을 통한 논증이다(72e-77a). 혼은 감각적 지각을 통해서 지각의 대상과는 다른 대상을 상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기가 가능하려면 지각 이전에 상기되는 대상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각을 한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상기되는 대상을 알고 있는 상태에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나는 시점부터 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망각 이전

에 대상을 알고 있었던 시점은 태어나기 이전이다. 앎의 주체는 혼이며 따라서 혼은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혹자는 소크라테스가 설명하는 상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감각적 지각을 통해서 상기되는 대상이 그러한 감각적 지각을 통한 개별자 판단의 기준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기되는 대상의 앎을 지각 당시에도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따라서 상기는 애당초 발생될 여지가 없다.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예를 따르자면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같음 자체를 상기하게 된다고 말해야 하지만 같은 것들이라는 판단 자체가 같음 자체에 대한 앎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음 자체는 이미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부터 앎의 존재가 획득될 수 없기 때문에 상기 역시 무로부터의 앎의 획득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며 이를 고려할 때 비판자는 상기란 지각 판단의 기준으로서 암묵적으로 사용되던 것을 유사성에 의거한 비교 판단(74a)을 통해 반성적으로 의식함으로써 비로소 앎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상기를 통한 앎은 반성적 의식에 주어지는 앎을 말한다. 다만 상기설 논증은 단순한 지각 내용의 수용으로서의 감각적 지각과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자를 판단하는 지각 판단을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태어날 때부터 지각을 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소크라테스가 예로 들고 있는 같은 것들의 지각과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논변을 따르자면 ‘같은 것들’과 같은 내용을 지니는 지각 판단이 가능해야만 상기가 일어남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며 그것으로부터 과거의 망각과 그 이전의 앎을 가지고 있었던 시점의 존재에 대한 논의를 도출함으로써 생전의 혼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태어난 직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유사상태로 삶을 영위하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지각 판단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감각 기관을 통하여 주어지는 감각 자료들에 대한 일방적인 수용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반성적 의식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망각 상태이지만 여전히 암묵적인 양상 속에서 지각 판단의 기준으로서 기능하는 앎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것을 인정할 경우 앎의 획득 시점은 생전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상기설을 통해서 혼의 생전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실패하게 된다.¹⁾

두 번째 논증(78b-84b)은 혼이 비가시성과 신적인 성질을 존재와 공유하며 존재가 불멸하는 것이므로 혼 역시 불멸한다는 일종의 유비 추리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혼이 지니는 신적인 성질은 육체를 지배한다는 측면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존재의 신적임은 그것의 자기동일성을 통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양자가 지니는 신적임의 내용이 다르다는 데 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언급하고 있는바 혼은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존재와 유사한 것으로서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육체적 쾌락에 이끌려 물질과 유사한 것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81b-c). 이렇게 혼은 유동적인 성질을 지니지만 존재는 불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해당 논증의 타당성을 공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시미아스와 케베스는 이상의 소크라테스의 논증을 듣고서 각기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한다. 시미아스는 혼이 육체를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조화이며 따라서 육체를 이루는 결합이 파괴될 경우 조화 역시 파괴되므로 혼은 소멸한다고 주장한다(85e-86d). 그리고 케베스는 혼은 수차례의 윤회를 거듭하면서 복수의 육체에 정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며 따라서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혼이 육체보다 먼저 소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혼의 영구적인 불멸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함을 지적한다(87a-88b).

소크라테스는 먼저 시미아스의 반론을 반박한다. 혼이 조화라면

1) 물론 인지발달심리학에 있어서 최근의 연구들은 갓 태어난 유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감각 데이터의 무질서한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일종의 능동적인 질서화 능력이 존재함을 보여줌으로써 위와 같은 반박에 대한 반론의 여지를 제공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자체가 철학적인 논의에 있어서 인식의 선형적 성격을 어디까지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는 보다 정밀한 논의가 요구된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지각과 지각판단의 개념들도 보다 세분화하면 세 가지 정도로 확장될 수 있으며 그것간의 엄격한 구분을 짓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지적될 수 있지만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이 문제를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겠다.

그것은 모든 혼에 있어서 동일한 수준의 조화일 것인데(93b) 혼은 좋은 혼과 나쁜 혼이 있다. 조화가 좋음이고 부조화가 나쁨이라면 모든 혼에 있어서 조화의 정도가 동일하다는 명제와 충돌하고 또한 혼이 조화인 한에서 그것은 순수하게 조화에만 관여(metechein)하지 부조화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93d)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혼이 조화라는 반론은 논박된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91d-95a). 그러나 혼에 있어서 조화의 정도가 왜 모두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그는 혼의 조화가 조화에 대한 관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는데(93d-94a) 이렇게 말하는 한에서 그는 관여의 대상으로서 완전한 조화와 그에 대한 관여를 통해 개별적 혼에 구현되는 조화를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기설을 논할 때 소크라테스가 개별자의 무엇임이 무엇임 자체로서의 형상보다 못한 것임을 지적한 것(74c)을 고려한다면 개별적인 혼이 관여를 통해 구현하는 조화 역시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며 이것을 부조화라고 말할 수 있을텐데 그는 혼이 오로지 조화에만 전적으로 관여하고 부조화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음(94a)으로서 해서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케베스의 반론에 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의 생성 소멸 전반에 관한 원인(aitia)을 논해야만 한다면서 원인의 탐구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말한다. 여기서 그는 기존의 원인 설명들을 비판하고 나서 자신이 혼란에 빠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선의 방책으로 로고스들에 의지한 탐구를 선택하였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탐구가 가장 참된 것으로 보이는 가정(hypothesis)에 의거하여 다른 주장들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이러한 가정을 통한 탐구는 다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최상위의 가정을 찾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소크라테스는 원인과 관련하여 무엇으로 됨(gignomenon)의 원인은 무엇 자체인 형상에의 관여(methexis)라고 말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개별자들이 형상에의 관여를 통해 그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각각의 규정성을 지니게 된다는 명제를 가정으로 삼아 혼의 불멸에 관한 마지막 논증을 제시한다(95a-102a).

혼의 불멸에 대한 마지막 논증(102a-107b)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닌다. 무엇임 자체(auto ho estin) 곧 형상(eidos)은 그와 대립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또한 대립자가 되지도 않는다. 개별자들이 형상에 관여함을 통해서 그 안에 나타나(parousia)게 된 이데아(idea) 역시 자신과 대립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립자가 다가올 경우 온전히 물러나거나 소멸한다(103d, 104b, 106b-c). 소크라테스는 명시적으로 형상과 이데아를 구분하지 않지만, 논증의 내용과 전후의 맥락을 통해서 관여의 대상이 되는 불변의 존재로서의 단일한 형상과 그에 대한 개별자들의 관여를 통해서 개별자들 안에 나타나는 복수의 이데아는 구별되어야만 한다. 어쨌든 몸은 살아있기 위해서 혼을 요구하며 혼은 삶을 그 안에 대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혼은 불사(athanatos)이다. 그리고 불사하는 것은 불소멸(adiaphthoron)한다. 따라서 혼은 불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증은 우선 관여의 대상으로서 객관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단일한 형상과 그것이 관여를 통해서 개별자 안에 나타나는 복수의 이데아 사이의 존재론적 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만일 개별자의 규정성이 형상이 가지는 규정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74c, 76e-77a) 이데아 역시 형상보다 모자란 것이라면 형상이 지니는 대립자의 수용불가능 역시 이데아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구현되지 못하고 때로는 대립자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삶이라는 이데아를 대동하는 것으로서 혼 역시 그것이 형상과의 유사성과 함께 개별자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 지위가 애매하며 따라서 혼이 과연 소크라테스가 제시하는 예들과 동일선상에서 자신 안에 이데아를 지닐 수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마지막 논증 속에서는 눈과 같은 지각 대상인 개별자의 예에서 시작하여 비가시적인 추론적 사고의 대상이면서 지각 대상들에 적용되는 것인 수의 예를 거쳐 삶을 대동하는 혼의 예가 제시됨으로써 그것의 존재론적 지위가 가지는 애매성의 문제가 은폐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혼이 대동하는 것인 삶이나 그에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죽음 모두 이데아이며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형상을 지녀야만 할텐데 삶

이나 죽음은 변화를 포함하는 사대이므로 불변하는 성질을 가지는 형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대아의 존재 역시 인정될 수 없다. 형상은 개념과는 달리 단지 특정 성질을 지시함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직접 지녀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각하는 개별자들의 성질들이 형상에의 관여의 결과이며 개별자들이 구현하는 모든 규정성 내지 무엇임이 형상에 그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는 명제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형상이 보다 완전한 형태로 개별자들이 각각 구현하고 있는 성질들은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상기설 논증에서 형상이 개별자들보다 완전한 것임이 이야기될 때 이미 예비된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불사성으로부터 불멸성이 자명하게 도출되지 않으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크라테스는 단지 대립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온전히 물러나는 경우와 소멸하는 경우로 나누고 있을 뿐이므로 그로부터 삶의 경우에 있어서 대립자인 죽음이 접근할 때 소멸하지 않고 물러난다는 것이 자명하게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IV. 로고스(logos)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증이 제시되기 이전에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대상이 지혜(phronesis)임을 밝히고 이것이 참된 탁월성(arete)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는 인간에게 존재(to on)가 파악되는 것은 감각적 지각을 통해 육체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혼이 그 자체로 있으면서 추론적인 사고(logizesthai, dianoia)를 사용할 때라고 말하고 있으며(65c, 79a) 지혜 역시 참된 탁월성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들은 이질적인 요소를 전혀 지니지 않는 순수한 것으로 제시된다(67a-b).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순수한 존재는 그

와 동류적인 것으로서의 정화된 혼에게만 알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 내지 지체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는 육체로부터의 영향을 벗어나 혼을 그 자체로 있게 하여 그 고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의 작업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화를 위한 수단이 바로 로고스라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원인 탐구에 대한 논의 도중에 자신이 감각적 지각이 주는 영상들을 통해서 존재를 고찰할 경우 혼이 눈멀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로고스들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들의 진리를 탐구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99d-100a). 지각의 사용은 육체의 활성화를 의미하며 이것은 결국 육체가 혼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혼이 스스로의 고유한 기능으로서의 지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반면에 로고스들의 사용은 그것이 존재 자체는 아니며 지각과 마찬가지로 존재에 대한 모상으로서 기능한다고 할지라도 육체가 아닌 혼의 고유한 기능으로서의 지성(nous)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혼으로 하여금 육체의 영향 없이 그 자체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정화의 역할을 하게 된다. 로고스는 지각이 동일한 대상들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판단이나 내용들을 제공하는 불안정한 유동성을 지니는 것과는 달리 항상 일의적인 의미를 지님으로써 고정된 대상을 지칭한다. 게다가 로고스는 지각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존재의 탁월한 모상을 제공함으로써 혼이 지니는 지성의 기능 중 하나인 추론적 사고를 작동시킨다. 예를 들어 상기설을 통한 혼의 불멸 논증에서 제시되는 '같음'과 같은 로고스는 지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지각 내용의 변화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미를 유지하는데다가 그것을 통해 같음의 비교 판단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혼의 추론적 사고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추론적 사고는 일의적인 의미 체계의 질서에 입각한 의미 규정을 통하여 인식 대상을 고정화시킴으로써 대상의 동일성을 확보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성은 지각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며 존재가 가지는 중요한 성질 중 하나이다. 이렇게 로고스는 지각을 통해 주어지는 영상에 비해서 탁월한 존재의 모상임과 동시에 육체의 영향 없이 혼이 지니는 고유한 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혼을 정화된 상태로 이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로고스는

모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존재를 혼에게 드러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존재는 정화된 혼이 지성을 통해서 직관(*noein*)할 때 비로소 자신을 드러낸다. 로고스는 이러한 궁극적 단계로 상승하기 위해서 혼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존재 탐구를 위해서 방법적으로 선택한 로고스는 특정한 질서에 입각한 것들을 말한다. 앞서의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질서의 일부가 암시된 바 있지만 그것을 보다 자세히 상술하기 위해서는 로고스와 관련한 소크라테스의 다른 언급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존재가 혼에 있어서 명백해지는 것은 추론, 즉 셈함(*logizesthai*)에 있다는 그의 언급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수를 통한 셈이라는 것이 불변하는 기본 단위로서의 하나를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서 존재가 지니는 단일성을 반영하는 로고스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위를 통한 셈이 아니다. 왜냐하면 원인 탐구의 논의에서 소크라테스는 둘로 됨의 원인이 하나의 반복이 아니라 둘임 자체에의 관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101c). 실상 단위의 반복을 통한 수의 구성이라는 말 자체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횟수를 요구함으로써 다시 수를 요구하는 순환논리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셈에 있어서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원인으로서 필연성을 지니는 것은 각각의 수들과 동일하면서 그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의 각각의 형상들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셈에 있어서는 연산의 법칙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단지 동일성을 통해서만은 해명될 수 없다는 점은 개별 수들의 원인으로서의 각 형상들 뿐 아니라 형상들간의 일정한 필연적 관계가 성립되어야함을 요구한다. 즉 일과 이의 합산이 삼이 되는 것이 항상 필연적인 연산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삼이 됨의 원인이 삼 자체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일과 이와 삼의 형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필연적인 관계 역시 해명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형상들의 결합(*koinonia*)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결합 관계에 있어서의 필연성은 앞서 둘 자체가 둘을 포함하는 것처럼 하나가 다른 것들을 포함하는 관계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논변 협오와 관련하여 소크라테스가 전문적

지식(techne)에 입각한 논변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89d-90d). 반박 논변(antilogikoi)들은 감각적 지각을 통해서 주어지는 명제를 대전제로 삼음으로써 지각이 가지는 유동성을 사용해 하나의 대전제로부터 서로 상반된 주장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전문적 논변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주장을 하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런데 썸에 있어서의 동일성이나 포함관계, 그리고 전문적 논변에 있어서의 동일성 내지 일관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존재 탐구에 있어서 제시되는 논변들은 대전제에 포함된 것을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되므로 전제와 동일한 것 이외에 어떤 새로운 앎도 가르쳐주지 않을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간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논증은 대전제로부터 그것 포함하는 내용들을 풀어냄으로서 논증을 거치기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존재의 구조, 즉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구성하는 부분들간의 필연적인 관계를 밝힌다. 이것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논증 이전에는 명시적이고 의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앎이란 기준에 자신 안에 주어져 있던 것이라도 암묵적으로만 작용하던 것을 반성적 의식 위에 드러내는 것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증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앎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상기설에 있어서의 상기도 지각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사용되던 기준으로서의 대상의 앎을 반성적으로 의식하게 해줌으로서 그것이 일종의 새로운 앎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존재론적으로도 아무런 판단의 기준이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한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서 기준에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밝혀내는 작업은 충분히 유의미하다. 두 번째로 소크라테스가 로고스들에 의지한 존재 탐구를 말하면서 가정(hypothesis)에 입각한 탐구를 들고 이러한 작업은 만족할 만한 것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위의 가정을 찾아나가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실(100a, 101d-e)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정들이란 논증에 있어서 대전제를 구성하는 명제와 같은 것이다. 혼의 불멸에 관

한 마지막 논증에서 형상과 관여의 이론에 대한 가정이 대전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앞서 논의했던 논증을 통한 작업이 하나의 대전제를 구성하는 부분적 요소들과 그것들의 필연적 관계를 새롭게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가정의 상승을 통한 탐구는 기존에 알려진 가정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보다 더 많은 내용을 지니는 상위의 가정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보다 큰 전체로서의 존재를 탐구하는 것이며 논리적 포함관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일관적이지만 기존에 알려진 것 이상의 내용들을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로고스를 통한 존재의 탐구는 논증을 통해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적 존재들의 필연적 결합 관계를 밝히는 하강의 과정인 동시에 이제까지 알려진 존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결합 관계의 위계상으로 보다 상위의 위치를 점하는 존재 또한 찾는 상승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성, 일관성, 필연성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존재에 대한 앎을 증진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인간이 죽음을 통해서 그 혼을 육체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전까지는 혼에 대한 육체의 계속적인 영향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혼에 대한 정화의 수련이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사용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욕망의 요청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육체의 영향은 혼이 정체되어 있는 한 육체 쪽으로의 타락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혼의 정화 수련은 계속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정화의 방법으로써 로고스를 통한 논증의 작업과 상기를 통한 앎의 확보는 죽을 때까지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V. 존재(to on)

존재(to on)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소

크라테스가 죽음을 통해서 혼이 육체와 분리됨으로써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참된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인식으로 대상으로서 존재가 제시될 때부터이다. 즉 그는 존재하는 것들(ta onta)이 혼에 명백해지는 것은 추론함(logizesthai)에 의해서이며 혼이 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그 자체로 있으면서 존재(to on)에 이르게 될 때 가장 훌륭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한다(65c). 또한 존재는 감각적 지각의 영향 없이 사유 자체만을 순수하게 사용할 때 올바르게 파악되는 것이다. 즉 존재는 혼이 순수한 정화의 상태에서 그 본래적인 기능인 지성(nous)의 사유만을 작동시킬 때 있을 때 가장 잘 파악된다. 그리고 인식의 동류성(66b)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존재는 순수한 것, 즉 자체적인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올바른 무엇인가(ti dikaion)가 그 자체로(auto) 있다고 말할 때(65d) 존재는 자체적인 것으로 즉 자기 안에 어떤 이질적인 요소도 포함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동일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순수한 것으로서 규정되고 있다.

대립자로부터의 생성을 통한 혼의 불멸성에 관한 논증에서는 존재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자기동일적인 존재와는 다른 것으로서 생성을 통해 변화를 담지하는 어떤 것을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빨간 것이 파란 것이 되었다고 할 때 빨강임 또는 빨강 자체가 그것이 아닌(ouk estin, is not) 다른 것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빨간 것이었다가 나중에 파란 것이 되는 어떤 것, 즉 그 빨강임과 파랑임을 수용할 수 있는 제삼자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변화의 대립적인 양 국면이 서로 다름(is not)으로 인해서 존재론적으로 단절되는 사태를 차단하고 서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과거에는 빨간색이었지만 지금은 파란색인 것으로서 그 변화의 시간동안 같은 것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대립적인 것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과 함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띠는 두 국면을 연결해줄 수 있는 동일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티마이오스』편에 제시되는 방황하는 원인

(planomene aitia)으로서의 어떤 무한정자(apeiron)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파이돈』에서 논의되는 존재는 변화의 담지자가 아니라 위에서 말한 빨강입과 파랑입 같이 자신이 지니는 규정성을 변화없이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빨강입 자체와 같은 것으로 명명될 수 있으며 이후에 소크라테스가 원인 탐구의 논의에서 말하고 있듯이 개별자의 무엇으로 됨을 가능케 하는 형상이 된다.

상기설 논증에 있어서 존재로서 등장하는 것은 ‘같은 자체(auto to ison)’이다. 이것은 감각적 지각을 통해 상기되는 앎의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론적으로 지각과는 어떠한 의존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 같은 자체는 감각적 지각과 무관하게 지각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앎 또한 같은 것들에 대한 지각 판단 이전에 존재하면서 그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준으로서 선행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감각적 지각의 대상들은 유동적인 데 반하여 같은 자체는 항상 자기동일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감각적 지각의 대상인 같은 것들은 같은 자체라는 존재의 모상이며 원물인 같은 자체는 완전한 것으로서 존재한다. 시미아스가 소크라테스의 상기설을 정리하면서 존재가 최대한의 의미에서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77a)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즉 존재는 그것의 무엇임에 있어서 정도상의 최대치를 갖는다. 또한 상기설 논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복수로 표현된 ‘같은들 자체(auta ta isa)’이다(74c). 일반적으로 존재가 단일성을 가진다고 할 때 복수로서 제시된 같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존재 자체는 하나로서의 단일성을 갖지만 그것이 개별자들에 나타나는(parousia) 또는 개별자들이 그 존재에 관여(methexis)하는 한에서 존재는 구체적인 대상들을 통해서 복수로 드러난다. 같은들 자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관여를 통해서 개별자들 안에 나타나는 것은 형상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이후 혼의 불멸에 대한 마지막 논증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혼의 불멸성에 관한 두 번째 논증에서는 조립된 것과 복합적인

(syntheton) 것이 해체되어 소멸하는 과정을 겪는 데 반하여 존재는 비복합적인(asytheton) 것이기 때문에 해체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존재는 'to on'이 아니라 'ousia'로 언급되면서 무엇임(to einai)에 대해 의미 규정(logon didonai)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다(78d). 따라서 ousia와 to on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ousia는 개별자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식의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써 그러한 술어를 보편화시킨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ousia는 to on과 다른 것은 아니고 의미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ousia를 언급한 후 소크라테스가 이것의 예들을 제시한 다음에 그것을 to on으로 일반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혼에 대해서 유비의 대상이 되는 존재의 속성들은 다음과 같이 종합될 수 있다. 비가시적이고, 신적이며, 죽지 않고(athanaton), 지성에 의해서만 인식되며, 한 가지 형태를 가지고 해체되지 않으며 자기동일성을 유지한다.

혼의 불멸성에 대한 마지막 논증은 이전의 원인 탐구의 논의에서 제시된 명제, 즉 각각의 형상(eidos)들이 존재하며 개별적인 것들은 이것에 관여(methexis)함으로서 그와 같은 규정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삼아 전개된다. 이 부분에서는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존재(to on)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형상(eidos)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논증 속에서 존재는 두 가지 것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객관적으로 독립된 존재로서 개별자들의 관여 대상인 형상(eidos)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관여를 통하여 형상이 개별자 안에 나타나(parousia)게 된 것으로서의 이데아(idea)이다. 문제는 개별자 안의 이데아가 대립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명제(103d, 104b, 106b-c)가 논증을 구성하는 핵심적 명제들 중 하나인데 이것이 참인 근거로 소크라테스가 무엇임 자체는 그와 대립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103b-c)는 점이다. 분명 이것은 형상의 성질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데아와 형상은 완전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존재론적인 차이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상 한 대상에서 성립하는 성질을 그와

다른 것에 무리하게 전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다. 또한 이 마지막 논증에서는 혼의 존재론적인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 혼은 이전의 논증에서 존재와 유사한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이 존재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혼은 존재가 단일성을 지니는 데 반하여 개별적인 복수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혼은 존재와 유사성을 지닐 수도 있으나 육체적 욕망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물체와 유사한 것으로 퇴락할 수도 있는 유동성을 지닌다. 따라서 혼이 과연 형상에의 관여를 통해서 특정한 규정성을 부여받는 것으로서의 개별자와 같은 존재론적 지위를 지니는지 아니면 관여의 대상인 형상과 유사한 지위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 있는 것이다. 마지막 논증에서 혼은 삶의 이데아를 대동하는 것으로서 개별자와 유사한 지위를 지니는 것처럼 제시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것이 이전의 논증에서 혼에 부여된 존재와 유사한 지위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가 해명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마지막 논증에서는 감각적 지각의 대상인 개별자의 예시로부터 지각되는 개별자들에 적용되지만 추론적 사유의 대상으로서 비가시적인 것인 수의 사례를 거쳐 혼의 경우를 제시하는 단계를 밟음으로써 혼이 존재 내지 형상에 대해서 지니는 존재론적 지위의 애매성을 은폐하고 있다.

VI. 맺음말

만일 『파이돈』편의 주된 내용이 혼의 불멸성에 대한 증명이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는 이 대화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대화편에 있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주장이나 논증들은 그것들이 제시되는 맥락을 고려함 없이 이해될 경우 단지 꺾데기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파이돈』편의 주제는 혼의 불멸성이 아니다. 이 대화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지혜의 인식과 함께 참된 탁월성들과 같은 좋은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

해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적인 혼의 정화 수련이 필요하므로 결국 철학함을 통하여 혼을 돌보는 삶의 자세가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이 대화편에서 주목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는 특정한 의미나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오로지 삶을 통해서 조명될 때에만 그 진정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형상에 대한 존재론적 논의나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증은 이러한 삶에 대한 요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근거로써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추구되어야 할 목적인 좋음과 탁월성들은 혼의 불멸성에 대한 논증 속에서 제시되는 형상 또는 존재의 개념을 통해 그것들이 무엇으로서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존재론적 문제의 대상이 되며 그것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기, 로고스, 원인 등도 또한 문제 거리가 되는 것이다. 『파이돈』 안에서의 존재와 인식의 문제는 단지 사변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공허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숙고의 공간 안에서 살아 숨쉬는 어떤 것이다. 예를 들어 대립자로부터의 생성을 통한 혼의 불멸성 논증에 대해서는 생성 내지 변화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때 변화의 주체를 불변의 형상이 완전한 존재라는 입장에서 볼 때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적인 성질을 지니는 혼이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 등²⁾을 논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결국 나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혼의 불멸성의 논증이 옳으나 그르냐의 문제에만 골몰하는 것은 『파이돈』편 전체를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작가인 플라톤이 전달하고자 하는 절실한 요구, 즉 철학함을 추구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숙고해 달라

2) 학사학위논문에서는 이 문제들을 자세히 다루었으나 본 논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상 다룰 수 없다.

는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논증에만 주목하는 독자는 『파이돈』의 주제나 맥락에서 이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삶으로부터도 유리되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를 방기하게 되는 것이다. 혼의 불멸성 논증과 그것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제기되는 로고스나 존재 등에 대한 문제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목표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탐구라는 조명 아래서만 그 본의미를 드러낸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본 논고가 이러한 측면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했음은 분명하지만 이 문제는 필자 개인과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는 각 독자들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치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1차 문헌

원전 · 주석서

Burnet, John, *Plato's Phaedo*, Oxford University Press, 1911.

번역 및 주석서

- 『파이돈』편

박종현, 『플라톤의 네 대화편 — 에우티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서광사, 2003.

Gallop, David, *Plato Phaedo*,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 그 외의 대화편들

박종현, 『국가 · 정치』, 서광사, 1997.

박종현 · 김영균, 『티마이오스』, 서광사, 2000.

박희영, 『향연 — 사랑에 관하여』, 문학과지성사, 2003.

Grube, G. M. A., *Meno*, Edited by J. M. Cooper associate editor D. S. Hutchison., *Plato Complete Works*,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97.

Gill, Mary Louise and Paul Ryan, *Parmenides*, 상동.

Nehamas, A., and P. Woodruff, *Phaedrus*, 상동.

Nehamas, A., and P. Woodruff, *Symposium*, 상동.

Irwin, T., *Gorgias*, Oxford Clarendon Press, 1989.

- 해설서

Dorter, Kenneth, *Plato's Phaedo: An Interpretation*.

- 파르메니데스의 단편

edited by Patricia Curd, Translated by Richard D. McKirahan, Jr., *A Presocratic Reader*,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96.

2차 문헌

- 김남두, 『플라톤의 파이드로스편 연구』, 철학과석사학위논문, 1973.
- _____, 「좋은 의 이데아와 앎의 성격」, 『서양고대철학의 세계』, 서광사, 1995.
- 남경희, 「플라톤의 파이돈 편에서의 상기설」, 『문제를 찾아서』, 종로서적, 1980.
- 박종현, 『희랍 사상의 이해』, 종로서적, 1982.
- _____, 『헬라스 사상의 심층』, 서광사, 2001.
- 박홍규, 『박홍규 전집 제2권: 형이상학 강의』, 민음사, 1995.
- 박희영, 「희랍 철학에서의 Einai, To on, Ousia의 의미」, 『서양고대 철학의 세계』, 1995.
- 이정호, 「플라톤의 <티마이오스>편에 관한 연구」, 철학과석사학위논문, 1980.
- 거스리(Guthrie, W.K.C.), 박종현 옮김, 『희랍철학입문』, 서광사, 2000.
- 릭켄(Ricken, Priedo), 김성진 옮김, 『고대 그리스 철학』, 서광사, 2000.
- 스넬(Snell, Bruno), 김재홍 옮김, 『정신의 발견 — 서구적 사유의 그리스적 기원』, 까치, 1994.
- 알베르트(Albert, Karl), 임성철 옮김, 『플라톤의 철학개념』, 한양대학교출판부, 2002.
- 옹(Ong, Walter J.), 이기우·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0.
- 마틴(Martin, Thomas R.), 이종인 옮김, 『고대 그리스의 역사』, 가람기획, 2002.
- Ackrill, J. L., *Anamnesis in the Phaedo: Remark on 73c-75c, Exgenesis & Argument*, Assen, 1973.
- Kerferd, G. B., *The sophistic Mov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김남두 옮김, 『소피스트 운동』, 아카넷, 2003).